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오늘 광주 토론회



담배소송으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1일 광주 지역 본부를 방문해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 토론회를 개최한다.

특히, 김 이사장은 김백수 광주 지역 본부장 및 관할 27개 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고 흡연에 따른 재정 손실 보전 방안 및 건강보험 운영시스템의 정상화와 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 방안 등 다양한 분야를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4일 광주광역시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에서 담배소송 추진 사항을 의결한 뒤 광역의회 최초로 '흡연폐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상의, 신임 사무국장에 홍호표 부장 선임



광주상공회의소(회장 박홍석)는 20일 홍호표 총무부장을 신임 사무국장으로 선임했다.

홍 국장은 장흥 출신으로 광주 동신고, 전남대 지역개발학과, 전남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86년 광주상의에 입사, 조사과장, 기획 조사팀 부장, 상공진흥부장 등을 거쳤다.

전임 박순형 사무국장은 지난 11일 임기를 8개월 앞두고 후배를 위해 퇴직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조선대 이필수씨 '한독제석장학생'



어려운 형편에서도 학업에 정진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이필수(24·조선대 약학과 4년)씨가 2014년도 한독제석장학생으로 선정됐다.

이 씨는 전국 33개 학교 대학원의 후보자 중에서 최종 선발돼 졸업 때까지 3년간 장학금을 받게 됐다. 그는 암 투병 중인 아버지를 간병해야 하는 어려운 형편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등록금을 베는 등 학업을 포기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 2012년에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간을 이식해 완쾌를 돋기도 했고, 복학한 뒤에도 수 차례 성적 우수상학금을 받는 등 모범적인 생활을 해왔다.

이 씨는 "장학생에 선발돼 이젠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여유롭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앞으로 신약 분야 등의 연구원이나 교수가 되고 싶다"는 꿈을 밟았다.

한편, 한독제석재단은 (주)한독과 창업주 김신권 명예회장이 2006년 설립한 사회공익법인으로 매년 어려운 형편에도 학업에 매진하는 의과·약학대학 재학생에게 졸업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폐기물 30t 수거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시영)는 최근 헬기를 투입해 무등산 장불재, 중봉 등 정상부 일원에 있던 철조망, 목재, 루프 등 노후화된 시설 폐기물을 30여t을 수거했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화족

▲최윤범(전 해태타이거즈 단장)·조학운씨·장남 진영(주) 범우종률사 업본부 과장)군 백광영(전 광주일보 순천주재기자)·김경화씨 차녀 승효(송원여고 교사) 양=22일(토) 오전 11시 수아비스 웨딩컨벤션 1층 수아비스홀.

▲이현우(광주부지개자동차매매상사 대표)·오궁례씨 차남 준용(광주 부지개자동차매매상사 과장)군 김덕필(GS칼텍스 여수공장 PP생산부 팀장)·소온분씨 장녀 소희(남도일보 편집국 전산팀) 양=22일(토) 낮 12시 S타워웨딩컨벤션홀 3층 메리골드홀.

▲강동훈·김영인의 차남 민석군 차용원(전남학숙원장)·김옥희씨 장녀 주희양=22일(토) 오후 1시 30분 JS웨딩컨벤션 티아모홀.

동창동문회

▲조선대학교 전기공학과 총동문회

“빼앗긴 졸업장 돌려드립니다”

전남대 '시대의 희생양' 2명에 명예졸업장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졸업장을 받지 못했던 두 명의 제작생이 모교인 전남대학교로부터 명예졸업장을 받는다.

전남대학교는 오는 26일 열리는 '201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최철(62)씨와 지난해 11월 사망한 김인원(당시 37세)씨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한다고 20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1974년, 농과대학 농업경제학과에 입학했다가 그해 4월 일어난 학생운동(일명 민청학련사건)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뒤 제적당했다. 민청학련사건은 박정희 정권 시절, 유신체제에 반대해 전국적으로 일어난 학생시위로 최씨는 당시 윤한봉·이학영 씨 등 다른 학우들과 함께 구속됐었다.

이후 민청학련사건은 대표적 용공조작 사건으로 재조명됐고, 지난 2009년 재심을 통해 사법부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최 씨는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아 명예를 회복했으며, 이에 전남대도 최 씨에게 40년 만에 명예졸업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김 씨는 전남지방경찰청 기동 9중대 소속 의경으로 근무하던 지난 1996년 6월 14일, 조선대에서 시위를 저지하던 중 쇠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17년간 투병 끝에 지난해 숨을 거뒀다.

여수수산대학교(현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 입학한 뒤 1학년을 마치고 군 복무를 위해 의경에 지원한 김 씨는 대학에 진학하면서 해양분야 연구원을 꿈꿨지만, 결국 물거품이 돼 주위에 안타까움을 샀다.

김 씨의 아버지 정평(68)씨는 메모지에 아들을 생각하며 쓴 글을 모아 '노래하는 새들도 목이 타는가'란 제목의 시집을 내며 그를 기렸다. 아버지 김 씨는 "아들은 시대를 잘못 타고나서 희생됐지만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



최철 씨

고 김인원 씨

1974년 민청학련 사건 연루 최 철씨

1996년 시위 저지하다 부상 고 김인원씨

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김씨에게 옥조근정훈장을 수여하고 명예경찰에 임용하는 등 공로를 인정했다. 김씨는 현재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돼 있다.

전남대 관계자는 "이들의 비극은 암울했던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체제가 가져다준 시대의 이름"이라며 "명예졸업장을 통해 두 분과 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기업복지 모범모델 '일신방직'

보육시설 갖추자 입사지원 늘어



향토기업 일신방직의 직장 내 보육원이 기업복지시설의 모범사례로 떠오르고 있다. 수준 높은 시설 및 교육환경을 갖춰 입사 지원자가 늘어나고 있을 정도다.

일신방직은 지난해 8월부터 7억원을 들여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한 '일신 어린이집'을 최근 개소했다. 최고 수준의 교육 및 관리를 위해 모든 보육직원을 정직원으로 채용했으며 인성교육과 미술교육, 인지교육 부분에 초점을 맞춰 여타 시설보다 한 단계 높은 보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예숙 어린이집 원장은 "리모델링을 한 뒤 교사는 물론, 학부모와 아이들이 무척 만족하고 있다"며 "실제로 리모델링 공사 후 어린이집에 관심이 생겨 일신방직 입사를 알아보는 학부모도 늘고 있고, 어린이집 원아도 10% 가량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일신방직 관계자는 "일신 어린이집은 자타가 공인하는 지역 최고의 직장보육시설로, 인력 안정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투자와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아동들의 보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전남기자협·변호사회 공익보도 자문 협약



광주·전남기자협회(회장 구길용)와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문정현)가 20일 광주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변호사회관 6층 회의실에서 '공익보도 자문변호인단' 운영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 5명으로 공익보도 자문변호인단을 구성해 상시 운영한다. 공익보도 자문변호인단은 법무법인 이우스의 강성우(45) 변호사, 이본석(43)·임주영(36·여)·김철수(37) 변호사가 참여한다.

공익보도 자문변호인단은 광주전남기자협회 회원 기자들의 취재활동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소송이 발생했을 때 법률 지원에 나선다. 공익보도 자문변호인단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광주지방변호사회(062-222-0430)나 광주전남기자협회(062-236-3316)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언기자 kki@

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승진 ▲순천출장소 고객지원팀장 권규승 전보 ◇전보 ▲전주지부 고객지원부장 박춘기

부음

▲백숙자씨 별세 이근우(전 광주지검 차장검사)씨 상배 재연(국민은행 서울여의도지점 차장)·재민·의준씨 모친상 강지성(대전지검 검사)·박진원(대구지검 검사)씨 빙모상=발인 29일(일) 그린장례식장 4층 특실

광주평생 교육진흥원, 자원봉사 활성화 협약



광주평생 교육진흥원(원장 박승주)은 19일 광주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광주시자원봉사센터(소장 임현순)와 지역 평생학습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조선대 2013 2학기 교원 정년 퇴임식



조선대학교 2013학년도 2학기 교원 정년(명예) 퇴임식이 20일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거행됐다.

/조선대 제공

광주교도소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광주교도소(소장 김상우)는 19일 오후 교도소 내 채용관에서 '자혜로운 선택! 희망을 향한 도약!'라는 주제로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했다.

/광주교도소 제공

금호타이어 신입사원, 사랑의 연탄 3000장



금호타이어 공채 신입사원 65명은 20일 암 투병 중인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박모(58)씨 집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해 15가구에 연탄 3000장을 전달했다.

/금호타이어 제공

062-250-4455

▲김봉득씨 별세 유영춘(위대향외과 관리과장)·영길(다면화원장)·영삼(광신대 교학부 처장)·유경씨 모친상=발인 22일(토) 스카이장례식장 102호 062-951-1004

▲윤정숙씨 별세 장형래(TBN한국 교통방송 광주본부 전 편성제작국장)·동래(한남광업주식회사 전 대표)·순영(권사)씨 모친상 김성진(순천대 산학협력교수)씨 빙모상=장윤석·기호·재호씨 모모상=발인 21일(금)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7분향소 062-231-8901.

▲김점수씨 별세 귀남·남수·윤금·해숙씨 부친상 김명옥씨 시부상 김병주·김훈씨 빙모상=발인 21일(금)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이복님씨 별세 김용백·옹신·민자씨 모친상=발인 21일(금) 무등장례식장 201호 062-515-4488.

▲윤명희씨 별세 임은석(매일건설 약국대표)·은정씨 모친상=발인 21일(금)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7분향소 062-231-8901.

▲김점수씨 별세 귀남·남수·윤금·해숙씨 부친상 김명옥씨 시부상 김병주·김훈씨 빙모상=발인 21일(금)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1.

▲이복님씨 별세 김용백·옹신·민자씨 모친상=발인 21일(금) 무등장례식장 201호 062-515-4488.

▲